



죽비와 목탁 박지원 부산주재 기자 hdbp@hanmail.net



### 포교 대상은 불자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에 걸쳐 세계사 회계교육대회가 열렸다. IOC 공식후원을 받는 세계적 행사로 100여 개국에서 선수와 임원이 참여해 각 나라의 전통경기를 선보이며 건강과 우애를 다졌다.

이 대회에 부산지역 1500개 교회에서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입국하는 각 나라 선수들을 공항 환영식에서부터 경기장 응원에는 물론 공항 환송식까지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불교계에서는 그저 수수방관했다.

대규모 스포츠행사에 대한 불교계의 이런 무관심은 포교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스포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관심과 참여율이 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교계에서는 포교에 주력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포교의 대상은 불자가 아니라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포교를 하겠다는 것일까. 천 년 전에도 천 년 후에도 변함 없을 경건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반 시민들이 무얼 하고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에 먼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지난 여름 온 국민을 열광케 한 베이징올림픽 때 조계종 포교원은 이례적으로 중국 베이징 경기장까지 찾아가 열띤 응원을 벌였다. 그리고 TV 중계에서 양궁 선수들이 손목에 염주를 끼고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은 전 세계인을 향한 포교가 됐다.

유럽리그에서 활약하는 축구 선수 박지성과 메이저리거 박찬호, 국민타자 이승엽도 불자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다. 이들 유명인의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포교에 심분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지난 달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는 국내외의 스타급 배우들이 부산을 찾았다. 이때 교계에서 유명 배우들을 사찰에 초청해 차담을 나누거나 토크쇼를 열어 접하게 했다. 좋은 포교의 한 방법이 됐을 것이다. 또 해외 불교영화 작품들을 사찰을 배경으로 제작하거나 사찰에서 상영하는 제안도 해볼 만하다.

부처님께서는 “진법을 위해 길을 떠날 때,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다. 따로 가야 더 많은 사람을 포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한 사람에게 법을 전하면, 이들은 수만, 수십만 명의 청소년 팬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음을 기억하자.

### “심려끼쳐 죄송... 꽃피는 봄날 온 것 같아”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지관 스님 예방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1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또한 고흥길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종교차별 관련 법안은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으니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관 스님은 “교회나 투표소 설치로 인해 교계에서 난처한 상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전혀 몰랐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최병국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선 기자

### 불학연구소, 조계종 ‘총림’ 조명 토론회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선원·강원·을원을 모두 갖춘 조계종 5대총림의 미래상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11월 2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총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가길’을 주제로 조계종단의 총림을 조명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해인사 해인총림(방장 범전), 송광사 조계총림(방장 보성), 봉

토사 영축총림(방장 원평), 백양사 고불총림(방장 지중), 수덕사 덕숭총림 등 조계종 5대총림의 미래상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식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종교불교의 총림’, 김상영 교수(중앙대)가 ‘한국불교의 총림’, 고영섭 교수(동국대)가 ‘조계종단 총림의 역사와 문화’, 종묵 스님(해인사승가대학 강사)이 ‘총림의 현황, 나아가길 방향’을 발표한다.

조종섭 기자

### “회암사 유물찾기 본격 막 올라”

11월 13일, 회암사 유물반환추진위 발족

인도 지공 화상이 창건해 나온 무학 스님 등을 배출한 조선시대 최고 국찰 회암사 유물반환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화재청지리찾기운동본부(사무총장 해문)는 11월 13일 양주 회암사에서 종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회암사 유물반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했다. 인목 스님(봉선사 주지), 김의정 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성수 국회의원, 임종빈 양주시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회암사는 보유 스님이 문정왕후 후원에 힘입어 조선불교 중흥의 기치를 휘날린 근분도량이었으나, 문정왕후 사후 유생의 보복으로 방화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문화재와 전

적, 사료 등이 모두 소실됐다. 회암사 유물인 약사삼존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도쿠가와미술관 등에 보관됐고, 석가삼존도는 미국 뉴욕메트로 컬렉션이 소장 중이다. 청동 발우와 지공 화상 비편은 경기도박물관과 동국대박물관 등에 전시돼 있고, 은제도금라미탑형사리구루는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보관 중으로 유물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다. 해문 스님은 “각지에 흩어진 문화재들을 ‘제자리로 환원’해 회암사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3308㎡ 규모로 회암사지 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조종섭 기자

###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제정 등 처리

179회 중앙총회 내년 예산 274억 확정... ‘진흥원특위’ 구성도

조계종 제179회 중앙총회 정기회가 내년도 중앙총무기관 예산 274억원을 확정하는 등 모두 17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총경감사를 위해 11월 6일 휴회했다가 10일 속개된 제179회 중앙총회(총회회장 보선) 정기회에서는 “2009년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197억, 특별회계 77억원 등 모두 274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4.2%, 특별회계는 0.13% 증가한 것으로 사실상 동결된 것이다.

이에 앞서 중앙총회는 종헌 개정안을 다룰 방침이었으나, 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중립 개정안을 먼저 다뤘다. 이에 따라 ‘신도법’과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고 ‘승려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폐기했다. 중앙총회는 또 ‘중앙총회의원선거법’ 개정안과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과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제정  
특히 중앙총회는 총무원장이 제출한 ‘관람료관리법’ 폐지 및 ‘문화재보유사찰보존법’ 제정안에 대해 ‘관람료관리법’을 폐지하고 ‘문화재보유사찰보존법’ 제정안을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으로 명칭을 수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찰 문화재의 보존, 유지, 관리 및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제정안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시민단체들의 문화재관료에 대한 회계투명화와 관료료징수 매표소 이전에 대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된 것. 이 중범은 기존 ‘관람료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로 변경했다.

‘# 법규위원회 등 인사관련 안건 처리’  
중앙총회는 인사 관련 안건들도 상정해 처리했다. △법규위원회 위원에 무상, 평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탁연 △승려학교관리

위원회 위원에 윤달 스님을 선출하고 △교육원인 제5회 고시위원회 위원에 위촉한 지현·지현·종호·지안·종서·성진·종목·분각·지형 스님에 대해 동의했다.

‘# 진흥원제자리찾기특위’ 구성  
중앙총회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결의문 채택 등 안건도 처리했다.

의원스님들은 ‘대한불교진흥원의 제자리 찾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위원장 의연 스님과 함께 현조·각원·진화·선문 스님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총회의원 무자 스님은 제안설명에서 “진흥원은 불교를 위해 사업단체를 구성한 것인데, 본의 아니게 모든 재산권의 소유가 종단으로부터 분리돼 삼보장재를 상실하는 모양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총회는 또 보타사 마애불 훼손 논란과 관련 ‘고려대 기숙사 신축 관련 중앙총회 결의문’과 ‘팔공산(갯바위 부처님) 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정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 조계종,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 구호식량 전달

5월 사이클론으로 100만명 이상의 사상·이재민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조계종 차원의 공식지원이 시작됐다. 재경 스님(총무원 사회국장), 법산 스님(동국대)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은 11월 23일 미얀마 빈사루 지역에서 미얀마 테인세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구호 식량,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한화 7000만원 상당의 식량 지원과 1억5000만원 상당의 병원·학교 건립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병원봉사연합회(회장 유재환 박사)도 조계종 긴급구호사업 일환으로 12월 24-28일 11명의 의료진을 미얀마로 파견해 해외의료봉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02)2011-1833 노덕현 기자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저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세시간 결가부좌의 즐거움 결가부좌 연습

결가부좌의 수승한 공덕 | 길상좌(吉祥坐)와 항미좌(降魔坐)

불도의 허명을 받아공관(般若空觀)의 인정에서 전개한 대승지식 용수보살(龍樹菩薩)은 결가부좌가 참선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좌법(坐法)임을 그의 저서 대지도론(大智度論) 제7권에서 밝히고 있다.

모든 믿는 법에서 결가부좌가 가장 안전하여 피로하지 않다. 결가부좌가 좌선수행자는 선지식의 좌법이다. .... 결가부좌는 참선수행자의 좌법으로 깨달음(도법(道法))을 성취하는 좌법이다. 그래서 마왕(魔王)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킨다. ... 마왕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참선수행자의 그림만 보아도 두려움의 근원으로 불인해하는데 허물어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선지식이 없는데 있어서 결가부좌의 좌법을 택하지 않겠는가!

#### 결가부좌연습 1 한기정화

결가부좌 연습에 들어갈 때 먼저 생명의체(生命體)의 주요 지점인 목 부위, 허리 부위, 무릎 부위, 발바닥 부위의 한기를 정화한다.

#### 결가부좌연습 2 근육이완

근육이완 수련은 결가부좌 자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하는 과정이다.

#### 결가부좌연습 3 완성자세

몸의 근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상호작용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결가부좌 자세는 주로 골반을 중심으로 아래로 발, 위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신체근육의 특성을 잘 고려하면서 결가부좌 자세를 만들어갈 때 결가부좌의 움직임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기쁨이 순환될 수 있게 된다.

#### 결가부좌연습 4 한 시간 결가부좌

완성자세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한 시간 결가부좌를 관음(觀音)을 공과한다. 모두 여덟 과정을 순서대로 수련한다. 먼저 첫 번째로 도인요율과 가슴보기를 수련한 다음 이어서 도인요율과 뒷배보기, 도인요율과 어깨배보기, 도인요율과 명문보기를, 도인요율과 관음보기, 도인요율과 무릎보기, 도인요율과 발바닥보기, 도인요율과 단련보기 순으로 수련한다.

#### 결가부좌연습 5 두 시간 결가부좌

두 시간 동안 결가부좌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바닥부위 현상, 발목부위 현상, 고자부위 현상, 무릎부위 현상, 대퇴부위 현상, 고관절부위 현상, 허리부위 현상, 다리마부 현상, 가려움 현상, 호흡장애 현상, 상기중립 현상과 그 밖에 현상들에 상응한 대처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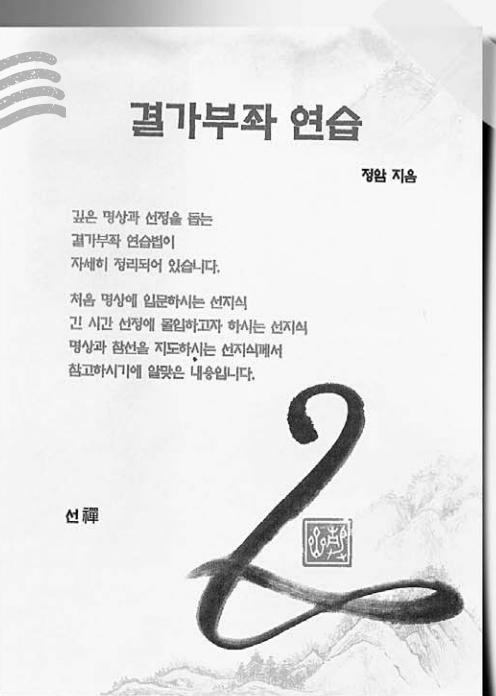
#### 결가부좌연습 6 세 시간 결가부좌

현실의 고라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결가부좌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정진이 된다는 마음가짐, 의식이 사물과 대응하면서 다양한 분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삶 그 속에 항상 분별상을 초월한, 생사를 초월한 본래면목이 확연히 깨어 있다는 마음가짐,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세 시간 이상의 순일한 결가부좌 정진력을 성취하게 된다.



#### 결가부좌 어깨서기와 결가부좌 머리서기

결가부좌의 정진자세는 바른 자세를 주요 방법으로 어깨서기, 결가부좌, 머리서기, 결가부좌, 누운 자세, 결가부좌, 앙드린 자세, 결가부좌, 손 짚고 선 결가부좌, 영덕이로 선 결가부좌, 옆으로 선 결가부좌 등 다양한 자세가 있다.



저자 장영순은 80세에 입산수도를 시작으로 재방 선지식에 명상과 참선수행의 가르침을 받았습다. 사십 여 년 동안 체득하고 연구하며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굳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결가부좌를 할 수 있고 세 시간 결가부좌를 성취할 수 있으며, 결가부좌 정진으로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이 함께 하는 자제인생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21세기 현대인의 심신양성을 돕는 여덟 가지 불이양생법: 차원명상, 불이태극권, 차원요가, 장생도, 양생소, 불이경전, 유마선, 하루단식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유마경의 불이사상 연구로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결가부좌 선양회

결가부좌 정진으로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을 성취하는 수행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결가부좌선양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제1회 결가부좌 삼일정진을 2009년 4월 18일~20일 불이양생치약산수원에서 개최합니다. 뜻 있는 많은 선지식께서 동참하시어 결가부좌 정진력 향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결가부좌 상담 : 채선 선생님(한국불이양생교육원장) 010-6720-2115

결가부좌선양회 www.결가부좌.com / www.shuangpan.com

결가부좌선양회 회원일동 합창

전화 052)260-1636 / 팩스 052)261-163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46-7 박일진수학학원 3F